

기준금리 파격 인하... 시중은행 금리 적용 속도는

예금은 '고속' 대출은 '저속'

CD금리 '찢금 인하' 주택 대출자 이자 부담 지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예금금리를 낮추는 등 광주·전남지역 금융권에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크게 밀돌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자마자 다음주 예금금리를 0.30~0.7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1개월제는 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연 3.15%로 0.75%포인트 낮아지며, 6개월제와 1년제도 각각 0.30%포인트 인하된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수신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인하 폭이나 시기에 대한 조율을 벌였으며, 국민은행도 예금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은행의 경우 이날 금리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금리가 CD

금리 등 시장 금리에 연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 9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벌여 대출자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주 CD금리는 연 6.18%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0.22%포인트나 올랐다.

또 CD금리는 이날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0.75%포인트)에도 불구하고 0.14%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그나마 이날 CD금리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장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변동형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를 0.03%포인트 하락한 연 6.93~8.23%를 적용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7.06~8.36%로 전날보다 0.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하락폭은 여전히 한은의 금리 인하폭을 크게 밀돌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CD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은의 금리 인하 및 판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더 내려가기 위해선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형 조선업체 강력 지원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핵심기술 선진국 수준 향상 위해선 900억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09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선진국의 90% 이상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900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2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한 최근 신중철 전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량 급증에 따른 조선용 후판의 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조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산업 정책은 대형 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소를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원이 대형 조선소가 투자해야 할 첨단 기술에 집중되기 보다는 중소형 조선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10대 조선소에 국내 조선소는 7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조선소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 50위권 안에는 대한조선(40위), 오리엔트조선(45위), C&중공업(47위) 등 14개사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선산업의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300억불을 돌파, 석유제품에 이어 2위의 실적을 기록하며 효자 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맛있는 국산 돼지고기
 농협전남지역본부가 27일 광주시 동구 중심사 입구에서 펼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행사'에 등반객들이 몰려 안심·등심·뺨다리살 요리등을 맛있게 먹고 있다. /내영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부동산 거래 늘었다

올 3분기까지 14만건... 작년보다 16% ↑

세계박람회 기대감 여수지역 41% 증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남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4만2천988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12만3천631건보다 16% 증가했다.

전남도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조선타운 및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으로 기대가치가 상승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박람회 개최 권역에서는 여수시가 41%, 순천시 31%, 광양시가 28% 증가했다.

또 신도시 개발지역인 무안군이 53%, 목포시가 15% 증가했으며 산단 개발을 추진 중인 함평군(29%)·장흥군(28%)·영광군(19%)·고흥군(15%) 등도 상당폭 오름세를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자 광주지방국세청 143만명

광주지방국세청은 27일 정부 방침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모두 14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임용직 근로자 등에 2만원에서 최고 24만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 전남·북 지역내 143만2천명에 2천852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11개 일선 세무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작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

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고시한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0월 신청대상 근로자 가운데 이달 26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19만9천명으로 전체의 33.1%에 달했다. 또 사업소득자 신고기간은 11월 한달 동안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토공 '일자리 창출' 1조2천억 공사 발주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1조2천84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는 위례신도시내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4천147억원)와 '특수전사령부 영외숙소 이전사업 시설공사'(1천319억원) 등이다. 연휴

고유가 속 연탄값 또 올라 서민들 겨울나기 힘들다

올해 1장당 305원까지 치솟아
 광주시관계자는 연탄 생산비가 장당 7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격 현실화 차원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현상으로 광주 지역의 난방용 등유 가격이 1 당 1천290원으로 지난해보다 348원이나 올랐으며 도시가스도 m당 656.31원으로 40.26% 올랐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난방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층 등 연탄을 사용하는 2천929 가구에 7만7천원 어치의 연탄 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808가구가 3만3천원 어치의 쿠폰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쿠폰 지원 대상과 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광주의 연탄 사용 가구는 2006년 2천977곳에서 지난해에는 3천482곳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3천330 가구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탄 쿠폰 지원이 확대됐지만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빚방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 토기차별죄로 형고의 율법체통
- 농산물품질관리법 25.05.07에 의해 고령사실자 등록부 지급 지원
- ※ 시험 : 11월 11일 23일 / 24일 25일 27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1명 신청순 조기마감 유무

차라히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5-2468

저탄소 순환 전기 보일러 온수기
 *신상, 양호, 근심 걱정 해결

가동감대비 60~80% 절감효과
 석탄, 목재, 기름, 액화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MODEL	연료	용량(리터)	연비(kWh)
EDS-150W	150W	150	1.5
EDS-200W	200W	200	2.0
EDS-250W	250W	250	2.5
EDS-300W	300W	300	3.0
EDS-350W	350W	350	3.5
EDS-400W	400W	400	4.0
EDS-450W	450W	450	4.5
EDS-500W	500W	500	5.0
EDS-550W	550W	550	5.5
EDS-600W	600W	600	6.0
EDS-650W	650W	650	6.5
EDS-700W	700W	700	7.0
EDS-750W	750W	750	7.5
EDS-800W	800W	800	8.0
EDS-850W	850W	850	8.5
EDS-900W	900W	900	9.0
EDS-950W	950W	950	9.5
EDS-1000W	1000W	1000	10.0

내부관리서비스
 1. 정기 점검 서비스
 2. 24시간 긴급 서비스
 3. 부품 교체 서비스
 4. 청소 서비스
 5. 안전 점검 서비스

유무선문의 080-909-0088
국립번호 010-9469-9373